제가 살고 있는 남원에서는 매년 음력 4월 8일이면 “춘향제”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 춘향제를 빠짐없이 매년하는 이유는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언제까지고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은 조선시대의 사람들로, 실제 인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지금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춘향과 이몽룡이라는 인물이 남원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오랜 세월동안 전해져 내려온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중기로, 춘향은 남원에서 가장 예쁘고 마음씨도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기생의 딸이라는 그다지 좋지않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몽룡은 양반집의 도련님으로, 아버지가 남원 부관사또로 내려옴에따라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남원구경을 하고 있던 어느날, 남원광한루를 거닐고 있는데 멀리서 그네를 타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발견하고, 한 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처자가 누구인지를 방자에게 물어보고, 춘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도령을 본 춘향 역시 늠름한 키에 뛰어난 외모의 이도령에게 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춘향과 이도령은 춘향 집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되지않아 이몽룡은 과거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둘은 오리정에서 이별을 고하고…

곧 새 부관사또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이몽룡의 아버지와는 달리, 탐관오리였습니다. 자신의 직무인 사또 일은 하지않고, 오로지 먹고 노는데만 정신이 팔려있었습니다.

내려온 지 얼마되지않아, 기생들을 총 집합시키고 성에 차지 않는다고 역정을 냈습니다. 남원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춘향이를 데려오라고까지 하는데…

춘향 자신은 결혼한 몸으로 갈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난 변사또는 춘향을 옥에 가두고 수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춘향의 대답은 엔제나 이부종사는 할 수 없다였고, 결국 변사또는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춘향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드디어, 변사또의 생일날. 풍월이 울리고 기생들의 노랫자락은 하늘을 찌르는데,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이도령은 어사가 되어 그 곳에 잠입하고, 위기에 놓인 춘향을 구합니다.

“사필귀정”이란 말대로 변사또는 붙잡히고, 다시 만난 이몽룡과 성춘향은 행복에 젖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인들에게 춘향이가 사랑받는 것은 그녀의 절개때문이 아닌지 싶습니다.